

해남 땅끝마을 '해님이·해맞이' 축제 준비 한창

31일-2025년 1월1일 새해 카운트다운 등 다채 행사 땅끝 전망대·모노레일·스카이워크 등 즐길거리 가득

한반도 남쪽 끝인 해남 땅끝마을에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해님이·해맞이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땅끝마을에서 31일-2025년 1월1일에 걸쳐 해님이·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해님이·해맞이 축제는 허각, 디핑크, 박상수 등이 출연하는 땅끝 음악회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대규모 불꽃쇼가 땅끝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31일에는 땅끝방 방문객 대상으로 새해 행운을 빌어주는 한정판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땅끝 청년들이 운영하는 땅끝 포차와 2천500원 떡국 운영으로 땅끝을 찾은 관광객들과 따뜻한 정을 나눈다.

또한 땅끝관광지 스탬프챌리, 타로

운세 체험, 희망의 촛불 만들기, 해양자 연사 박물관 야간 무료 개방,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새해를 맞이해 2025년 1월1일 이른 오전 북일 오소재 공원에서 해맞이 기원제, 공연, 가래떡 인정 나눔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새해의 행운을 부르는 대북 및 퓨전 국악 공연, 소원지를 묶은 띠배 띄우기 등이 마련돼 해맞이를 위해 땅끝을 찾은 이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세계땅끝공원은 한반도의 땅끝마을에서 세계 6대륙의 땅끝을 한 번에 만나는 이색장소다. 땅끝 전망대를 올라가는 모노레일 인근에 조성된 1만3천㎡ 규모의 공원에는 세계 대륙의 땅끝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6대륙을 상징하는 정원이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다.

땅끝마을에 갔다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곳 중 하나로 국내 해양계통 박물관



중 최대 규모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이 꼽힌다. 마도로스로 전 세계를 향해 하던 임양수 관장이 40여년간 직접 수집한 1만5천여종, 5만6천여점의 해양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리서도 눈에 띈다. 최근 땅끝탐 주변에 스카이워크가 조성돼 젊은 감성에도 맞춤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높이 9m, 길이 18m 땅끝탐 스카이워크는 '땅끝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기호를 디자인 컨셉으로 제작됐다.

방향이 아름다운 땅끝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바다의 일부를 투명 강하유리로 제작해 땅끝바다 위를 직접 걸어보는 스릴을 맛볼 수 있다.

▲해남군이 땅끝마을 송지면 송호리 일원에서 오는 31일-내년 1월1일에 걸쳐 해님이·해맞이 축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땅끝 모노레일, 땅끝스카이워크, 해맞이 축제 불꽃쇼 모습. <해남군 제공>

영암 어르신 위한 '밥상·커피' 이어 '빨래방'도 오픈

노인일자리 양성...수선 전문 인력 상시 근무 등 차별화

영암 어르신들이 '기찬밥상', '기찬커피' 이어 '기찬빨래방'까지 차렸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삼호읍 한마음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기찬빨래방'을 개소했다.

영암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기찬빨래방은 올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에서 국비 1억6천400만원을 확보하고, HD현대상호와 영암군의 협조로 5년 무상임대 사업장을 마련해 문을 열었다.

어르신 18명은 기찬빨래방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교대로 일하며 빨래 수거·세탁·건조·배송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수선 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

고, 사업장 내 편의시설인 라면 바도 갖추는 등 기존 빨래방과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하며 방문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지역사회 공동체 환원사업의 일환이자 영암 농·축협 10개소와 전남 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찾아가는 기찬빨래방'은 이날 말부터 이동차량 운행이 시작된다. 이 차량은 영암

11개 읍·면을 다니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이불과 겨울옷 등 대형 빨래를 세탁해 줄 예정이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군의 생산적 복지 대표 현상인 '기찬밥상'과 '기찬커피'의 성공이 이어 어르신들의 정성으로 운영되는 기찬빨래방이 문을 열었다"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이음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 2025 장난감도서관 신규회원 모집

16-27일 300명 선착순...연회비 2만원·최신 인기 장난감 대여

무안군은 12일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신규회원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회원 신청은 무안군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무안군 주소 여부 등을 확인 후 선발한

다. 등록 회원은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고 1년 동안 총 900여종 1천800여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최대 14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감성 발달 예방과 깨끗하고 안전한 장난감 제공을 위해 사용 전후에 철저히 세

척과 소독을 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장난감을 매 분기 추가로 구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장난감도서관 확장·리모델링 공사로 영유아 가족 휴게 공간을 조성해 환경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명수 신도시지원단장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회원 1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신안 장산·안좌면 '1004책방 작은도서관' 개관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 기대

신안군은 12일 "장산면 축강선착장과 안좌면 퍼플렉스카페에 '1004책방 작은도서관(사진)'을 개관하고 총 1천300여권의 서적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장산면 작은도서관은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여행객들이 대기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가와 소파를 마련했다.

안좌면 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안좌면의 학생들을 위해 북카페 형태로 꾸며졌으며, 권장 도서와 아동도서를 포함해 총 700여권의 신간을

비치했다. 신안군 노인회장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 신안군에 고맙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개최 시기 주의"

결산보고회서 기후변화 따른 변동·화장실 부족 등 개선 논의

올해 가을철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면서 내년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개최 시기 선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추진위원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 추진결과 및 결

산보고, 제25회 축제 발전을 위한 의견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상사화 빛에 물들GO! 영광에 머물GO!'라는 주제로 지난 9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 제24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30도 이상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상사화가 늦게 개화하면서, 만개한 꽃을 기대한 방문객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축제 마지막 9월20-21일 사이 내린 비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상

사화가 만개했고, 마지막 날인 9월22일부터 10월 초까지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며 가을철 대표 명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축제기간 선정과 이동식화장실 부족, 셔틀버스 운영관리 미흡 등 문제는 개선사항으로 내년 축제 개최 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김용식 추진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축제 결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결산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내년 축제 기획에 적극 반영해 전남도 대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

4년간 14만여점 표본 기증...회귀 표본 다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일 "지난 10일 생물표본 기증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학술 연구를 위해 생물표본을 기증해 준 기증자들을 예우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정식 개관 이후 현재까지 개인 14명과 연구기관 2곳 등 총 16명의 기증자로부터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표본 14만여점과 서적, 화상자료 등을 기증 받았다.

특히 기증품에는 신종 발표에 인용된 회귀식물 섬쭈부쟁이, 무척추동물 어리장수노벌레, 태평실노벌레 등의 기준표본과 1900년대 초반에 수집된 한국의 고표본, 전남과학고 학생들이 17

년간 모은 지의류 표본 및 학술서적 500여권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포함됐다. 제막식에서는 기증자들에게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현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신현철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생물표본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기증받은 표본 및 자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영구 보존되며, 향후 전시와 교육,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강열 도서생물연구본부장은 "기증 받은 소중한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번 행사가 생물자원 기증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평생교육도시 '자리매김'

시군 평가서 3년 연속 우수상...올해 145개 강의 개설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2024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 및 운영 현황, 활성화 노력 등을 항목별로 평가를 한 후 고득점 순으로 상을 수여하

고 있다. 완도군 평생교육원은 올해 총 145개 강의를 개설, 2천745명의 군민이 수강했으며,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60개 교실을 운영해 572명의 학습자가 등록했다. 또한 대외 협력 사업으로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와 각각 심리 상담사 양성, 시니어 모델 과정을 운영했으며, 네트워킹 구축·강화 사업으로 주기적인

평생교육 강사 간담회, 문해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주목받은 점은 강사에게 평생교육 운영 지침, 사업 참여 및 결정권을 부여한 점이다. 그 결과 강사의 직무 만족도와 책임감을 높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참여로 전년 대비 학습자 수가 약 10% 증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3년 연속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데 안주하지 않고 평생학습 강군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